설계의 인식체계, 이대로 괜찮은가!

First, Need to recognize the property, Architect!

국가경제에서 건설산업 비중이 낮아지고, 금융위기로 건설경기 침체가 계속되어 건설엔지니어링업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상황으로 몰리게 되면서, 사회기반시설의 설계 발주량을 늘리고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지금과 같은 위기가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국제경쟁력을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들고 설계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건설기술업역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한다. 우리의 건설기술은 국제적으로 최고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그러한 위상을 가지게 만든 설계는 최고 수준임에도 건설기술에 묻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설계의 인식체계, 이대로 괜찮은가. 무엇이 문제인가. 건설기술업역체계를 알 수 있는 건설기술진흥법령안을 통하여 설계의 인식체계를 살펴보자. 첫째, 관리적 수단인 건설사업관리에 감리와 감독권한대행업무를 통합하여 건설사업관리자가 프로젝트를 총괄토록 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설계위상을 약화시켜 감독, 시공과의 견제와 균형을 일그러뜨려 공익성과 함께 파트너의 권익을 침해하게 할 것이다.

둘째, 건설기술로 보지 않았던 건축사법의 설계를 건설기술용역에 포함시켜, 건설기술로 규정함으로서 설계와 건축사의 개념이 흔들리게 하고 있다. 설계란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결정체인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창작이자 정보화 작업이다. 건축사는 건축물을 설계하고, 건축프로세스를 통합 관리하는 마스터플래너임에도 단순 건설기술자로만 인식되게 하고 있다.

셋째, 법령에 쓰인 '건설기술용역'과 '역무(役務)'라는 용어는 설계를 하도급대상으로 인식되게 하고 있다. '건설기술용역'을 건설기술에 관한 역무(役務)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역무(役務)란 '노역(勞役)을 하는 일'이고, 노역(勞役)은 몹시 괴롭고 힘들게 일함, 또는 그런 노동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설계는 노역하는 일이고 기술용역은 노역을 수행하는 것이 된다.

공공기관이나 건설회사는 설계자를 하도급자로 인식하고 전형적인 '갑', '을'의 관계로 취급하는 인식체계를 당연시 하고 있다. 건축사는 프로젝트를 위하여 재능과 창의성을 발휘하기는커녕, 재료 하나도 선택하지 못하는 '갑'의 요구에 따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때문이 아닐까. 건설회사가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일하면서도 최하위 먹이사슬의 대상이지 않는가. 산업전문분야의 기술자격인 기술사나 기사 등과는 달리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라는 특정 분야의 업무수행이 보장된 전문면허자격을 부여받았음에도 말이다. 삼각균형의 한 축인 설계의 주체인 건축사가 감독이나 시공의 주체와 대등한 위상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넷째, 업무수행능력평가와 기술자평가방식의 설계발주방식을 보자. 이러한 체계는 설계 그리고, 건축사의 업무와 역할을 본질적으로 잘못 인식되게 하고 있다. 여건만 갖추면 업무수행이 보장되는 체계다. 건축사사무소를 덩치 큰 공룡으로 커가게 만들었다. 설계에 다수의 건설기술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건축사 한사람이면 가능하다. 세계적인 규모의 글로벌 스탠더드 건축사사무소임에도 용산 프로젝트에는 명함조차도 없지 않는가. 건축사를 건설기술자로, 건설기술용역하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사의 위상은 어디이고, 어디여야 하는가. 새로운 콘셉트와 아이디어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건축사들이 넘쳐 나고, 창의력을 가진 건축사들이 넘쳐 나며, 이미 국제경험이 풍부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충족되고 있다. 하지만, 그 재능과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건축물의 설계에 대한 인식체계는 근본적으로 그 개념에서 달라져야 할 것이다.

설계와 건축사, 그 업무와 위상, 그리고 용어에 대한 기존의 개념과 인식은 바뀌어야 한다. 건설기술업역체계의 개선 주체부터 이에 대한 개념인식체계가 달라져야 할 것이고, 인식과 사고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주권과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듯이, 건축물 설계의 주권과 권력도 건축사인 국민으로 부터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정책이 어떤 내용으로 입안되고 어떻게 집행되어야 하는지, 주권이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건설기술업역체계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은 사고와 인식의 체질개선 없이는 경쟁력 강화는 커녕 규제만이 더해질 뿐이고, 바뀌진 기준에 적응하기 위하여 모양만 바뀌게 할 것이다. 건축사는 프로젝트 실행의 보조자가 아닌 리더라는 사고개념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세계를 열광케 하고 있는 '케이팝'을 보라. 조용한 저력의 게임업계를 보라. 문화를 외치고 대중음악의 어려움을 걱정하면서 춤과 노래 기술자로, 게임기술자로 간주하였는지.

문제는 간단하다. 개념을 바르게 하고 인식체계를 새로이 하는 것이다. 소통과 함께 설계의 다양성을 읽어라. 제흥에 날뛰게 하고 미치게 하라. 가두려 하지 말고 분위기를 만들어라.

배홍열 | Bae,Hong-ryol,KIRA
(주)화인씨엠 건축사사무소

약력
•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